

# 경호무도 구성 원리의 미학적 탐색

정 연 완(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졸업)

홍 은 선(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A Study of Aesthetical Value of Composition principle on Security Guard Martial Arts**

Jeong, Yeon-Wan

Hong, Eun-Sun

## Abstract

Purpose of this research about reduction the scholastic systematic triangular position of the security guard martial art which repeats a development is insufficient with demand of the while society to recognize and for the philosophic value research of security guard martial art composition principle puts out with the one method and from the reporter to search the aesthetics which appears does.

In order to attain the goal of the research which sees the literature which relates with an security guard martial art widely, was an investigation and observed the aesthetics from concept and martial art of aesthetics and this the technical free use ability from actual site of the technical find which leads the practice voluntary repetition practice of security guard martial art with character and the body guard aesthetic integral part experience possibly did, there being will be able to acquire an aesthetic inspiration, confirmed.

So the security guard martial art follows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maximization · central attitude and shock point · breath control and mental intensive etc. of reinforcement of direction · shock of relativity · redundancy · mental moral culture · body agreement characteristic · force and relaxation · force and is completed and will be able to embody an aesthetic value with aesthetic elements of technical polishing process inside goes about reduction.

## I. 서론

무(武)의 발생은 인간 본능의 발현이다. 인간은 움직임과 동시에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의 능력을 필요로 했으며, 생명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왔고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인간의 문명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동작들이 인지가 발달하여 인위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무술(武術)과 무예(武藝)로 불리어지기 시작하였다(안용규, 2006).

결국 경호무도는 인간의 자위본능을 기초로 한 육체적 표현 및 정신적 욕구를 구체화하려는 신체활동이며, 경호무도는 손과 발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고 상대의 움직이는 동작 여하에 따라 자신의 기술을 결정하는 순간적인 무도이다.

경호무도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경호무도는 경호대상자의 적대적 신변안전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신체 각 부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막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신체의

유용한 부위를 적절히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반격하는 기술이다. 즉 경호무도는 공격개념을 기본으로 한 군대전술이나 테러전술이 아닌 상황이 발생한 후 행동에 들어가는 방어 또는 보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봉재, 2006). 그러므로 경호무도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정신 수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수련의 바탕이 되어줄 경호무도의 내용구성 및 경호무도를 수련하고 사용하는 자신을 다스릴 정신력 또한 연마가 필요하다(노승한, 2002).

특히, 최근 경호경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경호학이라는 신생학문의 발전을 일으켰으며, 체육대학 내 전공으로 분류되어 경호무도는 체육 교과목의 한 과정으로 교육되고 있다(김상진, 김종길, 2007).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 경호학 및 무도학은 체육인들에게 학문적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호학과와 체계적인 학문적 발전이 필요하다 주장되고 있다(박준석, 2003).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경호무도의 학문적 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박준석(2000)은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승한(2002)과 이봉재(2006)의 경우 경호무도의 구성과 원리를 밝힘으로서 학문적 체계를 위한 개념 정립에 몰두하였다. 이와 함께 경호무도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로는 이영석(2005)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그간의 경호·경비 및 경호무도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경호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문적 체계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호·경비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경호무도는 그 근간이 인간 본능의 발현인 무(武)와 그 맥을 함께 함으로 근본적 무도의 철학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경호무도는 경호 관련학과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목적 이외에도 호신을 목적으로 한 일반인들의 수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 경호무도 수련을 위한 구성 체계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이다.

임일혁(2003)은 연구를 통해 동양에서 일컬어지고 수행되는 무도(武道)는 술(術)적 경지와 예(藝)적 경지, 도(道)적 경지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곧 기술을 제대로 수련하여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면 예술로 승화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무도가 가진 철학적 가치규준의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경호무도의 개념 정립과 학문적 정립이 일반 무도 특성과 전통 무예 특성의 연구를 바탕으로 되어오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경호무도의 철학적 가치 연구를 위하여 미학적 논의를 개진 할 것이며, 미학을 바탕으로 한 경호무도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무도 관련 학위 논문 및 관련학회 논문을 정리하고 무도·무예·무술 관련 서적 및 자료와 간행물들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 II. 무도(武道)의 미학

### 1. 미학의 개념

사전적으로 미(美:Beauty)는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그 적용 범위가 지극히 넓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구조 하에 존재하는 사물의 행위·사상·언어·심상·기술적·실험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지닌다(임일혁, 2003).

미(美)란 선(善)과 마찬가지로 체험 사항이며 비합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그 본질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개 미(美)는 가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신적 가치를 표현하며 자기 가치적 이라고 설명하고 미적인 것은 어떤 대상적, 객관적인 것을 뜻한다(소광희, 1984).

미학이란 미(美) 또는 예술 혹은 감성적 인식을 주제로 하는 철학적인 학과이다. 철학적이란 함은 구체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보다 원리적·본질적인 상(像)을 지향하는 학문을 가리키며, 학과라고 함은 단순한 직관적인 인식이 아닌 분절된 문제체계를 가진 학문 분야를 의미하는데 이때 미학이란 미(美) 또는 예술 혹은 감성적 인식을 주제로 하는 철학적인 학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민주식 역, 2000). 그래서 미학(美學:Aesthetic)이란 미(美)를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춤, 연극, 조각, 그림 그리고 작문 등을 포함해서 자연과 예술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미학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은 아름다움과 취미 그리고 심미적 경험의 본질을 취급하는 것이며, 심미적 경험의 대상에 관하여 사고하고 논의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미학자들은 예술작품이나 심미적 경험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이 때의 예술작품이나 심미적 경험은 창조자(예술가), 대상(작품), 감상자(관람자/비평가)라는 세계의 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김창룡·임일혁, 2003).

### 2. 무도의 미학

현대의 무도는 각 지역 또는 국가별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궁도, 우슈 등으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허건식, 차명환, 김종호, 임일혁, 김형룡, 지동철, 2003). 그러므로 무술, 무예, 무도에 대한 개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룰 경호무도의 미학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무도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그 용어들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무술, 무예, 무도를 자의(字意)적으로 해석하여 무술(武術)은 기술을 사용한 실전적 대인격투기임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그리고 무예(武藝)란 기술의 실전적 가치를 확보한 상태

에서 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도(武道)는 기술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수련의 관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무술, 무예, 무도를 발전사적 시각에서 실천적 무술이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예술적 차원의 무예로 발전하여 수행자의 인격형성을 위한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통한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한 무도로 형성되어 왔다는 진화론적 해석이다(허건식 외, 2003).

이렇듯 무술, 무예, 무도에 대한 시각은 그 관계가 계층성을 띠고 있고 점점 상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도(道)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행위 해 나가는 길 또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을 재인식해 보자면 무술, 무예, 무도는 계층적 개념을 벗어나 그것들의 본질인 기술을 정확하고 정교히 연마해 예술로 승화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연 속에 융화되어 살아가는 도리를 깨우쳐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근본을 다련하는데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이 세 가지의 용어를 분리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무도의 미학이라 함은 무술, 무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경호무도와의 자의(字意)적 계연성을 위해 무도의 미학이라 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무도가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은 무엇인가? 무도의 미학을 다룰 때 체육의 개념에서 무도, 스포츠, 예술은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용은 예술이며 예술이 미(美)를 지니고 있으며, 무도는 예술이 아니기에 미(美)를 함께 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김정행, 최종삼, 김창우, 2002).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반대로 무용과 무도를 비교하여 미학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안용규(2006)는 무도의 미학 연구에서 밝히기를 무도는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수진퇴(攻守進退), 동정질서(動靜疾徐), 강유허실(剛柔虛實) 등의 대립과 통일의 규율에 의해 구성되며, 그 형태는 각기 독특한 미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분명한 리듬과 복식형태의 도복, 힘찬 동작 등은 사람들에게 심미적 감흥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무도의 동작시연 중에 나타나는 눈매, 몸놀림, 손동작, 발동작, 도약, 힘의 표출, 조형, 선회 등의 기본동작들이 개폐(開閉), 기복(起伏), 강유(剛柔), 탄토(呑吐), 신축(伸縮), 완만(緩慢) 등의 다양하고 통일된 미학적 요소들을 통해 예술부문의 귀감이 된다고 하였다. 즉, 무용으로 대변되는 예술과 비교되는 무도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무도의 발생이 인간 본능의 발현이라면 그 역사를 공유하는 무용 그리고 예술은 그 미학적 특성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에 명백히 해야 할 것은 무도와 예술이 보여주는 미학의 일치점은 그 본질적 내면의 것이 아닌 무도에서 수행자의 격투기술과 기술의 능력을 표현하는 형(形)과 예술의 무용과 음악에서의 표현내용으로 국한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무도가 추구하는 미적 특성의 탐구는 인체가 무도를 통하여 표현해내는 외적형태의 모든 것을 일컬을 수 있다는 뜻으로서 신체와 운동의 형식미를 기초로 설명할 수 있다. 박준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심미대상으로 조화롭게 발전한 신체는 미학의 표준으로써 측정해야만 하며, 운동미는 신체형태의 미와 운동능력의 미를 기초로 하는 동작미로서 기술미, 형식미, 복장미, 환경미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되고, 운동미는 곧 신체미의 표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형식미의 범

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무도의 미학은 기술의 습득이 정교함의 극에 달해 예술의 경지를 넘어 자연과 융화되는 도리를 깨우치려 할 때 인체의 미를 통해 표현하는 동작과 수련의 형태가 심미적 감흥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 3. 신체운동의 형식미

안용규(2006)와 박준현(2005)의 무도의 미학과 관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수행자의 신체를 통해 실천적 가치를 표출하는 무도(武道), 체육, 스포츠 등은 운동의 방법·기술·전술·규칙·동작의 조합 등을 통해 형식미를 표출한다고 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통일미

통일은 정제 또는 정제일률이라 칭하기도 하고, 반복 혹은 획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간단한 형식미의 요소이다. 신체운동 중에는 반복·일치의 예가 많다. 예를 들면, 매스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런한 걸음으로 조화일치를 이루며 대회장을 돌 때 장엄하고 웅장함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활력을 진작시킨다.

정제는 장중·웅장·강경·유력 등의 느낌을 주며, 운동 중에서는 주로 남자나 집체 항목 중에서 나타나는데 남자의 강건하고 힘 있는 웅위한 기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 2) 대칭미

대칭은 균형이라고도 하며, 상하좌우 혹은 방사형상이 같으며 각 부분 사이가 서로 어울리고 알맞은 것을 가리킨다. 인체와 기타 동물의 수많은 부위는 좌우대칭이 되고, 고요한 호수에 비치는 봉우리들의 투영 또한 대칭이다. 미학가 산타야나는 “우리는 양쪽 대칭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직을 요하는 대칭은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눈과 머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좌에서 우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 상하부등(上下不等) 역시 좌우부등(左右不等)이 일으키는 이러한 운동추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안부(眼部) 근육의 평형으로부터 느끼는 편안함과 수월함은 어느 상황에서든 대칭적 가치의 근원이다”라고 강조한다.

#### 3) 비례미

비례는 사물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의 사이 혹은 부분과 전체 사이의 대소·길이·넓이·굽기·방면 등의 수량관계를 말한다. 인체의 비례는 대체로 서로 같으나 세부적인 차이를 갖

는다.

황금비례(Golden Section)라 함은 인체 자체의 각 부분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우리의 손바닥과 얼굴이 그 평균 수치를 취한다면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두 손을 수직으로 세운 손가락 끝도 역시 이 비례에 따라 전체 신장을 분할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황금비례는 예술품에서는 물론이고 천체에서나 또는 자연물에서도 모두 다 응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계 가운데 인류의 신체상에서 더욱 더 응용될 수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 두 부분으로 나누면, 즉 배꼽을 경계선으로 상·하의 황금비례가 있는 바, 상부에는 머리로부터 인후 또는 인후에서 배꼽에 이르기까지, 하부로는 배꼽부터 무릎까지, 또는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모두 다 황금비례가 있다. 또한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폴리클리트스의 작품 《창을 가진 사나이》는, 곧 이 황금비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근대 저명한 프랑스의 건축사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인체의 우미비례의 기본적인 도를 시각적 심미에서 정밀하고 확실한 수학을 근거로 변화시켜 이를 건축양식에 응용할 수 있는 표준척도를 제시하였다.

#### 4) 균형미

균형은 상하 또는 좌우의 형식상에서는 비록 반드시 대칭이 되지는 않으나, 분량에서는 오히려 균등하여 사람에게 그 경중과 과대·과소의 무게감을 준다.

신체운동은 곧 끊임없이 기존의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다. 동작의 앞뒤의 연결과 조화, 훈련 중의 강도와 밀도의 합리적인 배치나 신체의 대소근육의 발달 정도는 모두 다 균형을 체현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체육활동에 있어서 심리상의 평형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시합 중에서 동작의 적절한 구성과 종목 배치의 합당함과 또 동작 구성에서 매우 어려운 동작의 합리적인 안배와 경기장·시설·기자재·조명의 분포나 사용상의 합리성은 모두 다 균형에서 나타나는 형식의 미이다.

#### 5) 대비미

대비는 쌍방의 대립은 두 물체가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우리들의 시각에는 곧 대비의 영상(映像)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두 팀이 시합을 한다면 운동복의 색상에 반드시 선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대비를 이루어 더욱 눈에 띄게 된다.

남자의 굳건함과 여자의 부드러움 모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고, 동작에 있어서 거세고 강건한 동작은 귀엽고 영민하고 온유하며, 유창하고 완곡한 동작과 서로 대조되어 상대방을 더욱 강조하고 돌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 6) 조화미

조화는 형상 중의 각 성분이나 각 구성 요소간의 대립과 통일의 협조관계를 가리킨다. 협조·조합·화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화는 부분과 부분 사이, 부분과 전체 사이의 통일관계를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형식상의 미감을 주며 융화(融和)와 원만한 일치성을 나타낸다.

색깔·음성·형체동작 등 여러 형상 중에는 모두 다 조화와 부조화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근원은 바로 사람 자체에 있다. 인체 각 부분 역시 하나의 몸체에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어 사람의 생존에 유익하며, 또 사람의 동작 역시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조화는 수고를 덜어주며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화는 광범위한 의의를 가진다.

가령 운동 보조시설·기자재·복장 대비가 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야 하며, 색상에서 흑백(黑白)과 홍록(紅綠)을 같이 배치시키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홍색과 등황색을 같이 놓아야 한다.

## 7) 층차(점층미)

사물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약간의 단계를 일러 층차라고 한다.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의 층층계단,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의 층층고탑,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소리 내며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 소리 등의 모든 것이 층차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농구나 축구 경기장에서의 센터, 배구에서의 세터, 매스게임에서의 핵심, 행진 대오에서의 전열(前列) 등은 모두 리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층차의 주종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 8) 곡선미

곡선미는 기타 형식미의 법칙과 병렬하기 어려우나, 운동에서의 중요 역할을 감안하여 하나의 특수연구 과제로 거론해 볼 수 있다. 보통 긴 직선은 사람들에게 단조롭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하여 파형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헤겔은 소위 “과량선을 미의 선”이라 칭하기를 좋아하였다. 곡선의 자유성이 미를 조성한다. 곡선은 일종의 유동성을 체현하는 유동미·동태미이며, 더욱이 곡선은 점차적으로 변화한다. 버어크는 “미는 반드시 직선을 피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완만하게 직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곧 곡선이다.

체육활동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곡선미는 특히 태극권에서 느낄 수 있듯이 원활하고 부드러우며 한 동작 한 동작이 아름다운 곡선을 조성한다. 리듬체조에서 빛깔 있는 리본이 공중에서 그려내는 순간순간의 다양한 곡선은 선수들이 주관적인 감정을 표출하여 인정미를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화면 구성이다.



## 9) 리듬미

리듬은 운동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으며, 체육과 예술(특히, 음악·무용·시가 등의 시간성 예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람의 각종 운동형식은 무의식적으로 생리적 리듬에 의해서 일정한 리듬형식을 갖게 된다. 각종 운동경기에서 특유한 리듬을 깨뜨리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높이뛰기·장애물달리기·구기종목 등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즉, 리듬 그 자체가 운동이다. 어떤 리듬이든지 일단 정지되면 운동도 곧 정지되며, 운동이 없으면 리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듬과 체육 혹은 운동의 관계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듬과 멜로디는 운동이며, 사람의 동작 역시 운동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리듬의 주기는 힘의 대비를 가져온다. 음악에서 기본적인 2/4박자는 심장 박동의 리듬과 비슷하며, 그리고 또 강약의 주기성을 갖고 있다. 리듬을 형성하는 모든 운동에서 리듬의 강약의 변화는 상대적이며, 반드시 시종을 관통한 전후에 하나의 완미한 전체를 구성해야 한다. 리듬에서 빠르고 늦음은 반드시 적당해야 하며, 사람의 생리상에서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린 리듬은 신체활동의 적응이 곤란하며, 동시에 예술리듬의 의미마저 상실케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미는 체적의 대소와 질서에 있는데 지나치게 작은 동물은 아름다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눈을 돌려 볼 필요도 없이 그것을 똑똑히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큰 물건 예를 들어, 길이가 천 리가 되는 동물 역시 아름다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눈으로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그 통일과 안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10) 다양성과 통일

다양성과 통일(혹은 변화와 통일, 반대한 통일, 변화는 통일에 포함된다는 등으로 불린다)의 의미는 형식미의 규율 요구는 덮어놓고 질서와 통일만을 추구해서 다양성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변화만을 위해 통일을 버린다는 것도 아니므로 반드시 두 방면의 결합만이 비로소 최고 규격의 형식미라 하겠다.

다양성과 통일은 생동성(生動性)과 완성성(完整性)을 나타낼 수 있으며, 거시적인 형식미 표현에 적절하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운동 가운데서 다양성과 통일은 운동 가운데서 서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보상성(相補相成)의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신체운동에서 다양성과 통일의 원칙은 다른 여러 형식미 법칙을 통솔하며, 체육 영역에서의 심미활동 속에서도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 III. 경호무도의 구성원리

경호무도의 구성 원리는 노승한(2002)의 연구에서는 구성과 원리로 범주가 구분되어 10개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봉재(2006)의 연구에서는 구성 원리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9개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승한(2002)과 이봉재(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호무도의 구성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대성

일반무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되지만 경호무도의 경우에는 상대의 변화가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그 변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와의 시공(時空)적인 관계에서의 대립으로 인한 기술 구사의 폭이 무한하다. 즉, 경호무도는 기술을 겨루는 대인무술이면서도 항상 상대의 움직임에 바탕으로 판단한 효율적 반응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호무도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불안정성과 긴장이 있으며 거기에 정신의 집중, 마음의 안정, 자기 통제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 2. 반복성

경호무도의 수련은 경호무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경호원이 스스로 반복 수련함으로써 경호무도 기술의 이론, 원리, 응용법 등이 몸 안에 스며들어 기본을 튼튼히 하며, 실천성이 부여 되도록 하는 정신과 행동(동작)표현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일 수준의 경호무도 수련계획에 입각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한 수련을 뜻한다. 이러한 반복적 수련을 통한 기술의 정교함을 터득하는 것은 단순 반복함을 뛰어넘어 경호무도 기술의 연마에 몰입을 할 때 가능하다.

#### 3. 정신수양

경호무도의 수련은 실천적 훈련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정신 혹은 인격의 향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즉, 경호무도의 수련은 마음가짐이라 하여 기술의 수련이나 반복연습 이전의 내용, 그리고 수행한 이후의 인간의 삶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갖는다. 그러므로 수련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것에 도달하기 위한 동작을 반복하고, 이 반복에 의해 동작이 진보되는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 연습이나 트레이닝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경호무도의 수행은 정해진 기술을 반복하는 것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규율로서의 마음가짐을 자율적으

로 지키며, 그 과정에서 인간 그 자체의 내면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경호무도의 마음가짐, 정신수양으로 가는 길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념하는 '집중'과 반복 수련하여 본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자득', 그리고 자아, 고집, 이기심, 완고 등을 경계하고 나를 버리는 '무사성'을 바탕으로 하겠다.

#### 4. 신체일치성

경호무도에서 기술의 수행은 단지 일정한 기술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몸으로 기억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운동수행 및 무도 수련 중에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경호무도의 수련으로 마음과 신체를 일치시켜 가는 것은 객체의 대립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 신체를 주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을 일정한 경호무도 기술에 맞추어 가는 훈련을 통해 기술이 체득되어 자신의 몸과 융화되어 가는 것이다.

#### 5. 힘의 방향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므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더하는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힘을 더하게 되면 전체적인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따라서 경호무도 수련 시에 지르거나 차거나 하는 기술동작에서 그 동작이 운동되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호상황 시 위해자의 공격방향을 판단하여 관성을 이용하여야 위해상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6. 충격의 강화 및 완화

경호무도의 기술에서 충격의 강화작용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달려올 때 약간의 힘을 가해도 상대방의 큰 힘과 자기의 작은 힘이 합치게 되어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되는 것을 말하며, 충격의 완화작용이 되는 것으로서, 넓은 면적으로 충격을 받아 충격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낙법과 같이, 동일한 충격력이라도 받는 면적을 넓게 하면 각 부위가 받은 충격력이 작아지게 되어 몸을 보호 할 수 있다.

#### 7. 힘의 극대화

긴장의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 힘은 아주 적절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가속도는 가해지는 힘에 반비례하고,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힘을 가해서 운

동속도에 변화를 주는 정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즉, 반복 수련을 통해 경호무도에서의 적절한 기술을 결정하는 것은 지니고 있는 힘의 양보다는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한 근육의 반응시간이나 수축시간이며, 많은 훈련을 함으로써 반응시간을 빨리하여 큰 힘을 내게 하는 것은 경호무도 기술의 원리를 훈련에 응용한 좋은 예이다.

## 8. 중심자세와 타격점

힘을 내는 기본 조건은 사람의 자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공격은 빨리 할 수 없으나 방어에는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반면 불안정한 상태는 방어에는 불리하나 공격에는 빠른 속도를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중심의 위치와 지지면에 따라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타격전은 수련 시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틀 속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가상의 가격점을 만들고, 이를 반복적 수련을 통하여 기술의 정확성을 가르기 위함이며, 가격 부위의 부착면 중앙을 힘의 작용점으로 정한다.

## 9. 호흡조절 및 정신집중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의식과 신체의 조절을 의미한다. 호흡조절은 끈기를 증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강한 공격도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공격력을 증강할 수도 있다. 경호무도 수련 시 공격에는 기합을 넣어 호흡을 뱉고, 호흡을 중지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타격에 효과적이다. 호흡을 내뱉는 것은 내 저항을 줄이고 또 몸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며 타격 순간의 호흡을 중지하는 것은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집중은 직접 목표물에 대한 주의를 목표에 두는 원리로 정신의 일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집중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타격이 크다.

# IV. 경호무도 구성 원리의 미(美)학

경호무도는 정신력, 집중력, 판단력, 담력, 용기 등의 많은 노력과 숙련을 통해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습득하는 무술로서 방어의 기질을 가진 무도이다. 특정한 형(形)과 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련자를 위한 반복적 수련이 가능한 기술의 집합을 지니고 있다. 경호무도는 기술, 힘, 호흡, 정신의 조절을 통해 위해상황 시 단 한 번의 공격 또는 방어로 상대를 제압하여야 하므로 기본기와 응용기술의 충분한 연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호무도는 경호상황 시에는 일격필살의 무기이지만 평상시에는 경호원의 정신수양을 위한 교육의 가치와 건강을 위한 신체발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호무도의 실천은 정신수양과 집중, 힘의 이용에 크게 좌우된다. 즉 수련을 할 때, 가상의 상대를 가시화하여 상대적인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상의 상대와 대조를 이루는 동작을 연습함으로써 공수진퇴(攻守進退)의 방법을 익히고, 상대와의 공방(攻防) 시 또는 동작 수련 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동정질서(動靜疾徐)의 필요성을 중요함을 일깨운다. 그리고 타격의 정확성과 힘의 극대화를 위한 강유허실(剛柔虛實)을 행함으로써 경호무도 수련이 가져오는 미의 구성을 체험한다.

경호무도는 그 특성상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이 융합되어 지르기, 막기, 차기, 조르기 등의 손기술, 발기술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어 기본동작들을 통한 개폐(開閉), 기복(起伏), 강유(剛柔), 탄토(呑吐), 신축(伸縮), 완만(緩慢) 등의 다양하고 통일된 미학적 요소들의 표출이 가능하다. 수련 시 동작들의 조화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로 표출되어 수련자가 지닌 신체미와 운동미로부터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기술이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구사되려면 신체일체성을 지향하도록 연마하여 자신의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 수련을 해야 하는데 이때 수련자 자신만의 체격과 체력, 힘의 강약, 기술의 속도가 경호무도에 있어서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정신, 신체, 기술, 호흡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수련하는 이와 보는 이 모두에게 심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위해상황 시 경호원의 경호무도는 정확한 판단력으로 순간적인 움직임의 필요로 한다. 피경호자를 방어함과 동시에 위해자를 향한 공격을 실행에 옮김으로서 경호임무를 완수 하게 된다. 그때 위해자의 행동에 따른 위해도에 따라 경호원의 숙련된 경호무도의 사용은 반복된 수련으로 체득된 기술성의 집약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경호원의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평상시 경호무도의 수련을 통해 공간미와 운동미가 기술에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호무도는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한 수련 속에서 심미성 표출이 가능하며, 미(美)의 체험을 통하여 실제상황에서의 협응력이 뛰어난 정확한 기술의 구사가 가능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경호무도 지닌 미학적 특성을 경호무도의 구성 원리를 통해 파악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그 학문적 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는 경호·경비학의 정규과정 내 경호무도의 미학적 근거를 제시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호무도는 수련과 실제상황에서 심미적 감흥의 체험이 가능하다. 경호무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방어와 공격을 행하는 무술로서 정신력, 기술력, 힘, 호흡의 조화가 필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반복 수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반복 수련과 함께 수련자의 신체조건, 체력, 동작 습득의 정도에 따라 무도의 미적 구성요소가 체험되며, 공방(攻防)

을 위한 동작의 협응적 수련 속에서 심미적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경호무도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학문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 할 것이며, 경호 관련학과 전공생들을 위한 교육체계의 다각화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경호무도의 가치를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상진, 김종걸(2007).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단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5호. 53-64.
2. 김정행 외 역(2002). "무도론". 서울, 교학연구사.
3. 김창룡(1986). "스포츠 미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4. 김창룡(1991). "스포츠의 미학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5. 김창룡·임일혁(2003). "태권도 경기 겨루기에서의 미적 탐구".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2호.
6. 노승한(2002). "경호무도 구성 원리와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7. 민주식 역(2000). "비교미학의 연구". 서울, 미술문화.
8. 박준석(2000). "한국 대학의 경호 관련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9. 박준석(2003a).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의 학문적 접근". 경호경비연구. 6호. 103-122.
10. 박준석(2003b). "경호무도의 특성과 수련방법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9호. 319-329.
11. 박준현(2005). "태권도 시범의 미학적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12. 소광희(1984). "철학의 제문제". 서울, 지학사.
13. 안용규(2006). "태권도 탐구논리." 서울, 대한미디어.
14. 이봉재(2006). "경호무도의 원리적용과 학문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15. 임일혁(2003). "태권도 미학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16. 최경석(2004). "무도의 발전과정 및 경호사적 의의". 한국스포츠리서치, 5호. 425-434.
17. 허건식 외(2003). "무도론 강의노트". 서울, 무지개사.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8일

심사의뢰일 : 2009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5일